



대상	■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 (나이트레이스)			
6000 클래스	■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는 폴투윈* 확률이 높다?			
	- '예선전 1위'를 차지하는 자가 포디엄 정상에 설 확률이 가장 높은 서킷 - 이번 슈퍼레이스 5라운드의 예선전을 주목하면 포디엄 예측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 6000클래스 폴투윈 확률			
	항목	나이트레이스	에버랜드	인제
	경기 횟수	13	31	17
	폴투윈 횟수	7	20	9
	확률	53.8%	64.5%	52.9%
	* GT 클래스 폴투윈 확률			
	항목	나이트레이스	에버랜드	인제
	경기 횟수	11	25	21
	폴투윈 횟수	7	17	13
	확률	63.6%	68.0%	61.9%
	* M 클래스 폴투윈 확률			
	항목	나이트레이스	에버랜드	인제
	경기 횟수	6	16	11
폴투윈 횟수	3	11	4	
확률	50.0%	68.8%	36.4%	
* 폴투윈(Pole to Win)이란?				
- 예선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워 출발선 맨 앞(Pole Position)에 서서 결승선까지 1위를 유지하며 우승하는 것을 의미.				
■ 서한GP팀의 최초 5연승 도전				
- 현재까지 6000클래스에서 4연승을 거둔 기록은 5번째, 5연승까지 가능할까?				
팀명	1차	2차	3차	4차
서한GP	2024년 1라운드 (정의철)	2024년 2라운드 (장현진)	2024년 3라운드 (장현진)	2024년 4라운드 (장현진)
엑스타레이싱	2023년 1라운드 (이창욱)	2023년 2라운드 (이찬준)	2023년 3라운드 (이찬준)	2024년 4라운드 (이창욱)
아트라스BX	2019년 8라운드 (김종겸)	2019년 9라운드 (조항우)	2020년 1라운드 (김종겸)	2020년 2라운드 (최명길)
시케인	2009년 5라운드 (밤바타쿠)	2009년 6라운드 (밤바타쿠)	2010년 1라운드 (밤바타쿠)	2010년 2라운드 (밤바타쿠)
C레이싱	2009년 1라운드 (김의수)	2009년 2라운드 (김의수)	2009년 3라운드 (김의수)	2009년 4라운드 (김의수)

■ 장현진 선수의 4연승 도전

- 역대 6000클래스 4연승 거둔 선수는 단 2명

선수명	1차	2차	3차	4차
장현진	2024년 2라운드	2024년 3라운드	2024년 4라운드	?
밤바타쿠	2009년 5라운드	2009년 6라운드	2010년 1라운드	2010년 2라운드
김의수	2009년 1라운드	2009년 2라운드	2009년 3라운드	2009년 4라운드

■ 역대 6000클래스 1~2위 간 최다 포인트 격차

- 2008년 시즌부터 4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1,2위간 포인트 격차 중 최다

- 현재 1위(장현진, 90점)와 2위(황진우, 60점) 간 포인트 격차 30점

구분	4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1-2 순위간 포인트 격차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위	90 (장현진)	81 (이찬준)	65 (김종겸)	53 (김종겸)	70 (김종겸)
2위	60 (황진우)	70 (이창욱)	51 (김재현)	45 (최명길)	52 (최명길)
점수차	30	11	14	8	18

■ GT 클래스, 최근 3년간 1~2위 간 최소 포인트 격차

- 현재 1위(정경훈, 53점)와 2위(정회원, 48점) 간 포인트 격차는 5점

- 2022년 시즌부터 3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1,2위간 포인트 격차 중 최소

GT
클래스

구분	3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순위간 포인트 격차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위	53 (정경훈)	39 (정경훈)	77 (정경훈)	40 (이창욱)	59 (정경훈)
2위	48 (정회원)	33 (정원형)	49점 (박규승)	37 (박규승)	52 (한민관)
점수차	5	6	28	3	7